

# 움직임 동사와 논항 연결, 재어나누기

양정석\* †  
원광대학교

**Jeong-Seok Yang. 1999. Argument Linking in Korean Motion Verb Constructions with Special Attention to Measuring Out. *Language and Information 3.1*, 39-63.** Korean manner-of-motion verb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locomotion verbs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and they are aptly encoded as having the primitive semantic element MOVE, not GO of Jackendoff (1990)'s Conceptual Semantics framework. This point is shown on the basis of their behavior, the inability to take the Goal 'NP-lo' phrases, the Purposive 'S-le' clauses, the 'NP-ey' phrases, and the atelic interpretation. It is further shown that the apparent locomotion verb behavior of some manner-of-motion verbs, 'exocentric' phenomenon in their meaning composition, is merely a transferred aspect of manner-of-motion verbs. Three kinds of strategies, transformational, quasi-transformational, and lexical ones, are examined to describe this phenomenon, and the lexical one is determin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The remaining part of this paper pursues the possibility of adopting Tenny's (1987, 1994) 'Aspectual Interface Hypothesis' in establishing an argument linking system with special attention to 'measuring-out', but concludes that the hypothesis can be accepted only in a restricted part of verbs, and with a modified notion of measuring-out like Jackendoff's (1996). (Wonkwang University)

## 1. 머리말

의미적인 요인으로부터 논항구조의 실현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결이론의 접근 방향이 근래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중 Tenny (1987), Tenny (1994)는 시상성(aspectuality)이 논항 연결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sup>1</sup> 그는 이러한 주장을 '시상성 계면의 가설(Aspectual Interface Hypothesis)'이라고 부른다. 줄여서 '시상성 가설'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국어의 움직임 동사 구문과 이동동사 구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시상성 가설'에 따른 논항 연결 이론의 수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움직임 동사와 이동동사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움직임 동사 중 일부가 논항 연결 방식에서 이동동사적인 특징을 보이는 점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sup>2</sup> 다음으로 시상성 가설의 긍정적인 측면인 '재어나누기(measuring-out)'의 개념을 수정하여 받아들이는 과정을 논의하려고 한다.<sup>3</sup>

이 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후반부의 논의를 위한 전제가 된다. 전반부에서는 움직임 동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동사 어휘의미 분석의 방법을 보이면서, 속어 구성에서 혼한 '이심적인 의미 합성'의 현상이 이들 동사의 구문에서 나타남을 부각시키고, 이러한 현상을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사이의 논항의 연결이란 관점에서 기술하려고 한다. 이 구분

\* 570-749 전북 익산시 신룡동 344-2 원광대학교 한국어문학부, E-mail: jsyang@wonwms.wonkwang.ac.kr  
† 이 논문은 1998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익명의 심사위원 두 분의 유익한 지적에 따라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이 수정, 첨삭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을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

1. aspectuality에 대한 역어 '시상성'은 김석득 (1981)을 따라 쓰는 것이다.
2. 이 글에서 '움직임 동사'는 움직임의 양태를 표현하는 동사로서 '움직이다'를 포함하는 일단의 동사들을 이동동사와 구별하여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핵심적으로는, 그 의미 원소로서 MOVE를 가지는 동사들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홍기선 (1995)에서는 우리말 용어 '움직임 동사'를 이동동사까지를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 글의 탈고 후에 접하게 된 채희락 (1999)에서는 종래 '이동동사'라는 개념이 '움직임/동작 동사'와 혼동되어 쓰인 잘못이 있다고 비판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리' 연결어미의 절, '-로'나 '-에' 명사형과의 공존에 관한 관찰 등 많은 부분이 이 글의 관찰과 일치하고 있다.
3. measuring-out에 대한 역어 '재어나누기'는 이 논문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다.

현상에 대한 접근 방안으로 변형적 접근, 주변형적 접근, 어휘적 접근의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이 중 어휘적 접근이 국어에서의 관련 사실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음을 밝힌다.

이 글에서 움직임 동사를 이동동사 부류와 구별하는 것은 술어해체를 이용하여 모든 동사들의 어휘의미를 완전히 기술할 수 있다는 이론적 구도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이 글의 전반부는 움직임 동사와 이동동사를 표상하는 기본적인 의미 원소로 MOVE와 GO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 특히 ‘목표(Goal)’ 명사항의 유무와 시상성 해석의 차이가 주목된다. 움직임 동사가 본질적으로 이동동사와 구별되는 것은 ‘목표’를 갖지 않음으로써 시상적으로 ‘한계성(boundedness)’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움직임 동사 중 일부인 소수의 유효적 용법에서는 한계성을 가질 수도 있다.

개별 동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어휘의미 기술이 주어진다면, 이를 기초로하여 논항의 연결에 관한 규칙들의 체계가 수립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Jackendoff (1990), Jackendoff (199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의미론(Conceptual Semantics)의 의미 표기 방법과 이에 바탕한 논항 융합, 부가어 규칙 등의 체계, 그리고 암시 논항과 당연값의 개념 등을 소개하려고 한다. ‘사건’과 ‘시간’, ‘경로’와 ‘장소’와 ‘사물’의 의미 범주를 체계적으로 구분짓는, 그리고 술어해체에 바탕을 둔 의미 기술의 방법이 움직임 동사를 중심으로 한 어휘들의 의미와 이로부터 유발되는 그 통사적 행태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한 시간 만에’ 등의 시간 부가어에 의하여 이들 동사의 특성을 규명하고, 논항 연결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Tenny의 시상성 가설이 이들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논한다. 그러나 그의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어휘의미의 중요한 국면으로서 ‘재어나누기’의 개념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중요한 언어학적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특히 재어나누기의 개념으로부터 한계성을 따로 분리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점을 동사의 어휘의미구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히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2. 움직임 동사의 이동동사적 용법

### 2.1 ‘움직이다’류의 동사들

동사 ‘움직이다, 뛰다, 걷다’ 등의 동사는 ‘가다/오다’와 함께 이동동사의 하나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sup>4</sup>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통사적인 행태로나 서로 상당히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의 어휘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해 주기 위해서는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 언어 유형론상의 분류나 언어습득상의 문제 해명을 추구하는 연구들에서는 Talmy (1985)의 분류를 따르면서 그 설명의 편의를 위해 두 부류의 중요한 차이를 간과해 온 측면이 있다. 가령, Choi and Bowerman (1991), 김영주 (1995)에서는 국어의 ‘가다/오다’나 영어의 ‘go/come’이 직시소(deixis)를 병합하여 어휘화한 동사라고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이 직시소와 함께 경로(path)의 요소를 병합하고 있다고 본다.<sup>5</sup> ‘가다/오다’를 포함한 이동동사는 경로의 하나로서 ‘목표(Goal)’를 자체에 포함하고 있다. 움직임 동사는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

‘움직이다’ 등의 동사는 원래 대상의 선적(線的)인 이동을 표현하지 않는다.

4. Talmy (1975), Talmy (1985), 전수태 (1987), 김응모 (1989), Choi and Bowerman (1991), Wienold (1992), 김영주 (1995) 등에서 이와 같은 경향을 볼 수 있다.

5. ‘경로’는 영어에서 ‘to’, ‘toward’, ‘via’ 등으로 표현되는 의미 요소를 가리킨다. 국어에서 이러한 경로를 표현하는 것이 ‘로’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주장을 정희경 (1988)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로와 구별하여 영어의 ‘at’, ‘on’, ‘in’ 등으로 표현되는 의미 요소를 ‘장소’라고 지칭할 것인데, 국어에서 이러한 장소를 표현하는 것이 ‘에’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본다. 경로 표현 ‘로’는 한계성에 대해서 무표적이지만 장소 표현 ‘에’는 고유한 한계성의 값을 가진다.

(1) 가. 아이들이 움직였다.

나. 철수는 걸었다.

다. 철수는 뛰었다.

이들은 원래 대상의 선적인 이동을 표현하는 이동동사와 다음과 같이 통사·의미적으로 구별된다.

첫째로, 이동동사는 목표의 ‘NP로’를 논항으로 취하지만, 움직임 동사는 비록 ‘NP로’ 형식과 공존할지라도 그것을 논항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sup>6</sup>

(2) 철수가 학교로 갔다.

(3) 가. ?\*아이들이 자기 학교로 움직였다.

나. ?\*철수는 학교로 걸었다.

다. 철수는 학교로 뛰었다.

(3가), (3나)는 일반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학교로 가거나, 걸어서 학교로 간다는 뜻이 의상으로 생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색하다. (3다)의 문법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우나, 위 (1)과 비교해 보면 이 경우의 ‘NP로’가 논항 아닌 부가어로서 행동의 방향만을 표시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움직임 동사인 ‘뒹굴다, 미끄러지다’ 등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NP로’를 취할 수 있다.

(4) 가. 그가 왼쪽으로 뒹굴었다.

나. 그가 앞으로 미끄러졌다.

이 때의 ‘NP로’는 이동의 ‘목표’가 아닌 ‘방향’을 표시한다. 순수한 방향을 표시하는 ‘NP로’의 경우, 이것과 공존할 수 없는 동사를 찾기는 힘들 정도이다. 거의 모든 종류의 비상태성 동사가 방향의 ‘NP로’를 취할 수 있음에 반해서,<sup>7</sup> 목표의 ‘NP로’를 취하는 동사는 매우 제한된다. 동일한 형태인 ‘-로’가 순수한 방향의 ‘-로’와 목표의 ‘-로’로 나뉜다는 사실도 이동동사와 움직임 동사를 서로 다른 부류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함을 말해 주는 한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이동동사는 단문 구조에서 ‘NP로’ 성분을 취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NP에’를 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5) 가. 그가 이곳에 왔다.

나. 철수가 학교에 갔다.

그러나 움직임 동사는 의미상으로 동작 또는 운동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NP에’와 결코 공존하지 못하는 것이다.<sup>8</sup>

6. 익명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2)의 ‘학교로’조차도 논항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i) 철수는 어제 학교로 갔다. 그러나 도중에 친구를 만나 공원에서 놀았다.

ii) 철수는 어제 학교에 갔다. #그러나 도중에 친구를 만나 공원에서 놀았다.

이 두 예가 수용성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데 대해서는 필자도 같은 의견이다. 그러나 “철수가 한 시간 만에 학교로 갔다.”나 “철수는 한 시간 만에 학교에 갔다.”나 모두 종결성(telic)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경우의 동사 ‘가다’는 그 자체 내에 목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점이 움직임 동사와는 다르다. 한 예로 ‘뛰다’는 “철수는 어제 학교로 뛰었다. 그러나 도중에 친구를 만나 공원에서 놀았다.”가 가능하나, “?\*철수는 30분 만에 학교로 뛰었다.”는 완성성의 의미로는 부적절하므로 ‘가다’의 경우와 구별된다. ‘-로’는 경로(path)의 표지로서 한계성에 대해서 무표적이며 ‘-에’는 장소의 표지로서 한계성의 값을 고유하게 가진다고 본다. 이에 따라 위 두 예의 수용성의 차이가 생겨난다.

7. 위에서 보이게 될 움직임 동사의 한 하위부류는 방향의 ‘NP로’와 공존하지 못한다.

8. 이 점을 양정석 (1997가)에서 지적한 바 있다.

- (6) 가. \*그가 이곳에 움직였다.  
 나. \*그가 학교에 뛰었다.  
 다. \*그가 정거장에 달렸다.

이러한 성질은 움직임 동사가 동작의 목적지를 표시하는 요소를 논항으로 가지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로 고려할 사항은 '-러' 연결어미와의 공존 여부인데, 이는 홍재성 (1982), 홍재성 (1987)에서 이동동사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된 바 있다. '-러' 연결어미의 절은 이동동사와만 공존한다. 이 글에서도 '이동동사'라는 용어를 이와 같은 취지로 사용한다.<sup>9</sup>

- (7) 가. 그는 요양하러 이곳으로 왔다.  
 나. 김선생이 출석부를 가지러 교무실로 갔다.  
 다. 그들이 자기 편을 찾으러 떠났다.

그러나 의미상 운동을 표현하는 동사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러' 연결어미의 절과 공존하는 것은 아니다. 움직임 동사들이 그러한 예이다.

- (8) 가. \*그가 바람을 쐬러 걸었다.  
 나. \*아이들이 헬리콥터를 보러 뛰었다.

9. 홍재성 (1982), 홍재성 (1987)에서 이동동사는 통사적인 정의로서 주어졌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러'와 공존할 수 있다고 하여 '땀추다', '머물다', '남다'도 이동동사라고 판정하고 있다.

철수는 길을 물어러 차를 멈췄다.(1987:21)

철수는 영희를 만나러 광주에 며칠을 머물렀다./철수는 뒷처리를 하러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1987:43)

이 점에서 필자의 '이동동사' 개념은 홍재성 (1987)과 완전히 같지 않다. 필자는 '-러' 연결어미의 절이 나타날 경우 후행절은 반드시 이동의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예는 필자에게는 적절한 표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연세대학교 한국어사건편찬실의 '표준연세말뭉치' 1121만 마디(어절)에서 검색한 결과(연결어미 '-러'를 포함하는 문장 6000여개)로도 '땀추다'와 '머물다'가 '-러'와 공존하는 용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다'의 예는 다음과 같이 방언을 묘사한 표현이 발견된다.

아, 그 여자야 일본이 저그 고향인디 여그 땀 허러 남것소?

서태룡 (1982)에서는 “무엇하러 일을 합니까?”와 같은 예를 홍재성 (1982)에 대한 반례로 든 적이 있는데, '표준연세말뭉치'에서도 “땀기는 땀 하러 뭍소?”와 같은 예가 더 발견된다. 이런 문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때 '무엇하러'는 매우 특별한 관용적 의미를 띠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 후행절의 동사에 대한 제약은 없어진다. 표준연세말뭉치에서 '-러'와 공존하는 용례 6000여개 중 절대 다수는 이동동사이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 주목을 끈다.

마누라도 핸드백을 간수하러 자리를 뜨자...

그것을 보고 손을 거들러 나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올해는 상대 타자들이 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러 대들 뿐 아니라...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정창령의 형님이 동생을 잡으러 나타났다.

그 때 다방에 그녀를 만나러 모인 주위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 예들에서 후행절의 동사는 본래적으로 이동동사는 아닐지라도 어느 경우나 화용적 상황에 따라 이동의 의미가 강제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후행절 동사의 이동의 의미와 상호작용하는 점은 '-러'의 기본 의미 기능으로서 유지된다고 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러' 연결어미 절과의 공존 가능성을 이동동사의 의미를 가지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로 사용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있다.

(9) 가. \*그들이 자기 편을 찾으러 움직였다.

나. \*그가 책상 위의 연필을 잡으러 선 채로 몸을 움직였다.

‘-러’가 후행절의 동사에 대해서 특정의 통사적, 의미적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움직임 동사는 그 시상성과 관련한 행태에 있어서 이동동사와 다른 점이 발견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움직임 동사나 이동동사나 모두 ‘NP로’ 성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움직임 동사 구문에서 이 ‘NP로’는 ‘방향’의 의미를 표시하나, 이동동사 구문에서는 이동의 결과 지점을 표시하게 된다.

(10) 가. 그는 왼쪽으로 돌아왔다.

나. 그는 학교로 갔다.

이에 따라 시상적인 특징에 있어서 상이한 행태를 보여준다. ‘만에’ 시간 부가어를 개입시켜 보면, 두 동사의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

(11) 가. 그는 오 분 만에 왼쪽으로 돌아왔다.

나. 그는 오 분 만에 학교로 갔다.

움직임 동사의 (11가) 문장은 특정의 참조 시점에서 오 분 후 ‘도는’ 동작이 시작됨을 표시한다. 그러나 이동동사의 문장 (11나)는 학교에 가는 이동의 행위가 오 분 걸렸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 시점에서 학교를 향하여 출발한다는 의미를 아울러 표현하고 있어 중의적이다.<sup>10</sup> ‘NP로’가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했던 앞의 예 (3다)도 움직임 동사가 가지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다음에서 ‘오 분 만에’는 ‘시작까지의 오 분’으로만 해석된다.

(12) ?철수는 오 분 만에 학교로 뛰었다.

통사적인 측면에서 이동동사와 움직임 동사가 공유하는 특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두 부류의 동사는 특정한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구가 조사 ‘-를’ 및 ‘-로’가 부착되어 실현되는 것을 허용한다.

(13) 가. 그가 들길을 간다.

나. 그가 들길로 간다.

(14) 가. 그가 들길을 걸었다./뛰었다./달렸다.

나. 그가 들길로 걸었다./뛰었다./달렸다.

이런 경우 (13)이나 (14)나 ‘NP를’은 ‘경로’의 하위 개념으로서 ‘경유지’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하지만 ‘-를’이 부착된 명사구가 언제나 이렇게 경유지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15다)는 이동동사 문장의 목적어가 ‘경유지’ 외에 ‘목표’의 의미를 가짐을 보여준다. (14)의 움직임 동사 문장에서는 장소 목적어가 경유지 또는 배경을 나타낸다. 중요한 것은 (14나)에서 보는 것처럼, 목표를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이다.

10. 국어에서 시간 부가어 ‘NP 만에’를 이용하여 시상성 검사를 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것이 완성동사(accomplishment verb)와 성취동사(achievement verb)를 검증하는 것으로만 생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동작동사(activity verb)의 문장에서 이 부가어가 어떤 참조시로부터 ‘시작’까지의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보통 완성동사 문장에서는 ‘시작까지의 시구간’과 ‘시작부터 끝까지의 시구간’의 해석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동작동사 문장에서는 ‘시작까지의 시구간’의 해석만이 가능하다.

- (15) 가. 그가 들길을 간다. (경유지)  
       나. 그가 서울을 갔다. (목표)  
       다. 그가 들판을 갔다. (경유지, 목표)
- (16) 가. 그가 들길을 걸었다/달렸다/뛰었다. (경유지)  
       나. \*그가 서울을 걸었다/달렸다/뛰었다. (\*목표)  
       다. 그가 들판을 걸었다/달렸다/뛰었다. (경유지/배경)

목표 명사항을 가질 수 있느냐 여부는 시상성의 차이와 관련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동동사의 경우와는 달리, 움직임 동사의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경로 아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17) 가. 그가 기계를 움직인다. (대상)  
       나. 그가 서울로 차를 달렸다. (대상)  
       다. 그가 들판을 걸었다/달렸다/뛰었다. (경유지/배경)

움직임 동사의 문장에 목표의 ‘NP로’와 경유지의 ‘NP를’이 다 쓰이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경로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일이 제약되는 것으로 보인다.

- (18) 가. 철수는 서울을 고속도로로 갔다.  
       나. 철수는 고속도로로 부산으로 갔다.

(18)이 문법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다음 두 문장 형식은 배제된다.<sup>11</sup>

- (19) ?\*철수는 서울을 고속도로로 달렸다.
- (20) 가. \*철수는 고속도로로 부산으로 달렸다.  
       나. \*철수는 한길로 집으로 걸었다.

그러므로 동사 ‘움직이다’를 비롯한 움직임 동사들은 원래 이동동사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동동사와 구별되어 ‘움직이다’류의 행태를 보이는 동사들을 국어의 상위 빈도순 동사들 중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2</sup>

- (21) 움직임 동사:  
       뛰다, 걷다, 기다, 움직이다, 돌다, 달리다, 썰다, 뜨다, 날다, 튀다, 흐르다, 들뜨다, 구르다, 뒹굴다, 미끄러지다, 몸부림치다, 머뭇거리다, 꿈틀거리다, 헤엄치다, 뿔내다, 거닐다, 망설이다, 서성거리다, 번뜩이다, 뛰놀다, 두근거리다, 설치다, 운동하다, 휘청거리다, 출렁거리다, 출렁대다, 일렁거리다, 움찔거리다, 비틀거리다, 꾸물거리다, 헐떡거리다, 헐떡이다, 주춤대다, 주춤거리다

11. 익명의 심사위원은 (19)가 ‘서울 시내에서 이리저리 고속도로로 달린다’는 뜻으로는 정문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움직임 동사 구문에 경로가 둘 나타나는 일이 배제된다기보다는, 경로가 한계성을 가지는 목표의 표현인 것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12. 연세대학교 한국어사전편찬실의 1992년 빈도 조사에서 얻어진 최상위 빈도순 동사들 약 3000개 중에서 골라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움직임 동사와 이동동사와 구별하고, 그 어휘의미구조에서도 다른 형식으로 표상하기로 한다. Jackendoff (1990)의 의미 형식화 방식을 따르면, 이동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대상(Theme)과 목표(Goal)의 두 논항을 가지는 'GO'로 표시되며, '움직이다'류의 어휘의미구조는 한 자리 함수 MOVE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된다.<sup>13</sup>

(22) 가. 움직이- : [MOVE( X )]

자동차가 움직이자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나. 가 : [GO( X , Y )]

철수가 교무실로/에 갔다.

위에서 이동동사로부터 구별해 낸 움직임 동사들을 다시 다음 세 가지로 하위구분해 볼 수 있다. 각 유형의 어휘의미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내기로 한다.

(23) 제1 유형: 움직이다, 걷다, 뛰다, 달리다, 기다, 날다, 돌다, 헤엄치다, 뿔내다, 뛰놀다1, 운동하다, 거닐다

[[[MOVE( X )], [Manner ]], [AFF( X, )]]

제2 유형: 흐르다, 튀다, 구르다, 미끄러지다, 뜨다, 들뜨다

[[[MOVE( X )], [ Manner ]], [AFF( , X )]]

제3 유형: 출렁거리다, 출렁대다, 일렁거리다, 움찔거리다, 꾸물거리다, 험떡거리다, 험떡이다, 주춤거리다, 주춤대다, 텅굴다, 떨다, 몸부림치다, 머뭇거리다, 끄물거리다, 번뜩이다, 뛰놀다2, 두근거리다, 비틀거리다, 망설이다, 설치다, 휘청거리다

[[[MOVE( X )], [ Manner ], +반복성 ] [ AFF( , X )]]

여기에는 특히 작용의미층(action tier)이 더해졌다.<sup>14</sup> 1)은 작용자를 가지나 2)와 3)은 그렇지 못하다. 작용의미층에 '[ AFF( X, ) ]'와 같이 표시함으로써 작용자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을 형식화한다. 사동성 함수 CS의 첫째 논항은 '행위자'로 정의된다. 동사가 작용자를 가지거나 행위자를 가질 경우를 합쳐서 이 동사가 행위성을 가진다고 한다. 1)의 논항 변수 X는 관계의미층(thematic tier)에서 대상(Theme)이지만, 작용의미층에서는 작용자(Actor)가 된다. 이 점은 명령형, 청유형, 통제 구문에의 분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13. 'GO' 함수의 두번째 논항에는 TO, TOWARD, VIA, FROM 등의 경로(Path) 함수가 나타나야 한다. 또, 경로 함수는 장소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고, 장소는 다시 사물을 논항으로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통사구조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념구조를 형성하는 규칙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짐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EVENT] → [GO([THING],[PATH])]

[EVENT] → [MOVE([THING])]

[PATH] → [TO([PLACE])]

[PLACE] → [AT([THING])]

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Jackendoff (1990) 참조. 사건 함수로는 'GO', 'MOVE' 외에도 CAUSE, STAY 등이 설정되어 있고, 장소 함수는 'AT' 대신에 'IN', 'ON'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형성 규칙은 논항 융합이나 부가어 규칙에 의해서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구조의 의미 성분들이 서로 결합할 때 부적격한 개념구조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뒤의 2.2절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규칙들이 가지는 제약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14. 작용의미층은 Jackendoff (1990)의 action tier에 대한 필자의 역어이다. 위에서 AFF(X,Y)와 같은 꼴로 설치되어 있는 층(tier)을 지칭한 것인데, 작용의미층의 함수의 첫째 논항, 즉 X를 '작용자(Actor)'라 부르고, 둘째 논항, 즉 Y를 '피작용자 (Patient)'라고 부른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양정석 (1997나)을 참고할 수 있다.

15. 이와 같은 방법은 김영주 (1990)를 따른 것이다.

(24) 가. 움직여라/움직이자/그들은 움직이려고 노력했다/나는 그들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했다

나. \*홀러라/\*호르자/\*호르려고 노력했다/\*호르라고 명령했다

다. \*출렁대라/\*출렁대자/\*출렁대려고 노력했다/\*출렁대라고 명령했다

2)의 동사들 중 ‘구르다, 미끄러지다’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듯하나 당연값(default value)으로서 비행위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sup>16</sup>

(25) 가. ?굴러라/?구르자/?그들은 구르려고 노력했다/?그들에게 구르라고 명령했다

나. ?미끄러져라/?미끄러지자/?그들은 미끄러지려고 노력했다./?그들에게 미끄러지라고 명령했다.

(25)는 이 동사들이 행위성을 갖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들 문장의 수용가능성은 “?별이 잠들었다.”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잠들다’는 그 주어에 [+유정성]을 선택제약하는데, ‘별’이 그 선택제약을 어기므로 이 문장은 일단 비문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택제약은 문법의 한 부문인 어휘부 내에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구르다, 미끄러지다’와 같은 동사들이 의지성(volition)을 가질 수는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6) 가. 이 반이 \*일부러/\*고의로 운동선수를 포함한다.

나. 그가 일부러 굴렀다./고의로 미끄러졌다.

보통 움직임 동사는 ‘가다, 오다’와 결합하여 합성어 형식을 만들 수 있다. 3)은 그 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 특징을 보인다.

(27) 가. 움직여가다/움직여오다, 걸어가다/걸어오다, 뛰어가다/뛰어오다

나. 홀러가다/홀러오다, 굴러가다/굴러오다, 튀어가다/튀어오다, 미끄러져가다/미끄러져오다

다. \*출렁대어가다/\*출렁대어오다, \*일렁거려가다/\*일렁거러오다, \*움찔거려가다/\*움찔거러오다

목적어를 가지는 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검사해 보면 세 유형 모두 어휘개별적인 특색을 보여줄 뿐, 하나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28) 가. \*그가 마당을 움직였다./그가 산책로를 걸었다./들길을 뛰었다./ 거리를 달렸다./하늘을 날았다./트랙을 돌았다.

나. 물이 목욕탕 바닥을 흘렀다./공이 방바닥을 굴렀다./공이 바닥을 튀었다./얼음판을 미끄러졌다.

다. \*물이 강을 출렁냈다./\*물이 바다를 일렁거렸다./\*그가 방안을 꾸물거렸다.

(28)은 장소 표현이 목적어가 될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그 외의 표현이 목적어로 쓰일 가능성은 개별 어휘에 따라 더 차이가 난다.

16. 명령형의 ‘?굴러라.’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군대에서 이른바 기합을 주는 경우 이런 표현이 쓰인다. 아무튼 무정물을 주어로 선택제약하는 ‘구르다’를 인간 주 체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파격성이 감지된다.



(29) 가. 그가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그가 걸음을 걸었다./그가 땀을 뒀었다./100미터 달리기를 달렸다.

나. ?그가 동작을 꾸물거렸다./?그가 몸을 움찔거렸다.

방향의 의미를 표시하는 부가어 ‘NP로’와의 공존가능성에서 3)은 다른 행태를 보여준다.

(30) 가. 철수가 왼쪽으로/왼편으로/왼쪽 방향으로 움직였다/걸었다/뛰었다/달렸다.

나. 물이 왼쪽으로/왼편으로/왼쪽 방향으로 흘렀다./공이 왼쪽으로 굴렀다/튀었다/미끄러졌다.

다. \*왼쪽으로/\*왼편으로/\*왼쪽방향으로 출렁뿔었다/일렁거렸다/움찔거렸다/꾸물거렸다/헐떡거렸다/헐떡었다/주춤했다

상태성 동사 외에 방향 표현인 ‘NP로’와 공존하지 못하는 예는 아주 드문 것인데, 이 점에서 3)유형의 동사들은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2.2 의미 합성의 이심성과 그 기술

기본적으로 움직임 동사는 이동동사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 동사가 ‘NP로’와 공존하여 이동동사적 쓰임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31) 가. 그들이 청송으로 움직였다.

나. 범인이 부산으로 튀었다.

다. 강물이 서해로 흘렀다.

동사 ‘움직이다’의 문장은 다음처럼 ‘-러’ 연결어미의 절을 허용함으로써 특이한 행태를 보여준다.

(32) 가. 그들이 새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러 부산으로 움직였다.

나. 부대가 게릴라 잔당을 소탕하러 청송으로 움직였다.

(33) 범인은 도피처를 구하러 부산으로 튀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러’ 연결어미의 절과 공존하는 것은 이동동사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다. ‘-러’ 연결어미는 선행절의 주어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정성의 체언일 것을 요구하므로 기본적으로 ‘호르다’ 따위의 동사와는 공존할 수 없다. 그러나 앞 절에서 이동동사와의 구별을 위해서 들었던 특징 중 시상성과 관련한 것이 있다. 움직임 동사들이 ‘만에’ 부가어와 공존할 경우 특정 참조 시점으로부터 시작까지의 시간을 표현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는 그 동작의 완료까지의 시구간이라는 의미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이동동사들이 가지는 특징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34) 가. 강물은 한 시간 만에 서해로 흘렀다.

나. 범인이 하루 만에 부산으로 튀었다.

이를 통하여 ‘움직이다, 호르다, 튀다’가 이동동사로서의 의미를 얻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의미를 [가다]로 표현한다면, 이 [가다]의 의미는 ‘가다, 오다’ 등의 본래적 이동동사들이 가지던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구성성분들의 의미가 합성되어 구성체의 의미를 이루어가는데 있어서 ‘이심적인(exocentric)’ 특징을 보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동사의 구성성분들의 의미가 정상적으로 합성되어 구성체의 의미가 얻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통사적 환경에 따라 제삼의 의미 요소가 나타난 것이다.

동사 의미의 이심적 전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하자.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동사 의미를 다음과 같이 형식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본다. ‘움직이다’의 두 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기로 한다.<sup>17</sup> ‘움직이다’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의미 요소를 ‘MOVE’로 표시하여 (31가)의 동사 ‘움직이다’를 (35나)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5) 가. 원래의 ‘움직이-’ : [MOVE( X )]

나. (32)에서의 ‘움직이-’ : [ [ GO( X, [ TO( Y ) ] ) ], [ BY( [ MOVE( X ) ] ) ] ]

X와 Y 등의 변수는 의미적 논항의 자리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자리는 ‘논항 융합’이라는 의미 해석 규칙의 적용을 받아 통사구조의 해당 논항이 가지는 의미를 채워 가지게 된다.<sup>18</sup> (31)에서의 ‘움직이다’의 의미는 ‘가다, 오다’의 의미를 그 의미구조의 주절에 가지게 되고,<sup>19</sup> 이에 따라 일반 이동동사들 ‘가다, 오다’와 같은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31)과 같은 예가 의미상의 이심성을 띤다고 하는 것은 [GO( X , [TO( Y ) ] ) ] 같은 의미 성분이 주절에 새로이 형성되었음을 일컫는 것이라 하겠다.<sup>20</sup> ‘BY’는 다음과 같이 (31나)를 동의적으로 바꿔쓴 문장에서 연결어미 ‘-어(아)’에 대응하는 ‘방편(means)’의 의미로 표상한 것이다.

(36) 부대가 게릴라 잔당을 소탕하러 청송으로 움직여 갔다.

움직임 동사의 이상과 같은 의미 합성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세 가지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는 변형의 기제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문의 특징이 새로운 구성성분, 즉 ‘NP로’를 도입하는 데에 관여하는 것이고 보면 표준적인 변형의 기제로 기술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국어의 다른 구문 현상에 대한 이와 유사한 처리의 예를 떠올린다면, 과거 생성의미론자들의 사동문 기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정민 (1973)의 기술이 그 표준적인 예이다. 그곳에서 사동문과 그에 관련되는 ‘주동문’은 서로 다른 기저를 갖지만, 기저구조에서 사동문이 주동문의 구조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연관성이 포착된다. 그리고 접미사계 사동문과 보조동사계 사동문, 그리고 ‘시키다’ 사동문이 동일한 기저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설정된다. (35)의 두 가지 ‘움직이다’ 사이의 연관을 포착하기 위하여, ‘이심적’ 구문의 통사적 기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물론 간략화한 것으로서, 각 어휘들이 그에 대응하는 의미 요소들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37) [[ 부대 ]<sub>NP</sub> [ 움직이 ]<sub>VP</sub> ]<sub>S-어</sub> [[ ∅ ]<sub>NP</sub> [ 청송으로 가 ]<sub>VP</sub> ]<sub>S-았다</sub>

이러한 구조는 ‘-어’를 매개로 한 합성동사, 즉 ‘움직여가다’와의 연관을 포착해 준다는 점에서도 기대되는 면이 있다. 실지로 (36)과 같은 문장이 가능한 것이다. (37)과 같은 구조가 다음 (38)의 표면 형식으로 나타나려면 ‘움직이-’와 ‘가-’가 하나로 통합되어 ‘움직이-’로 어휘 실현이 되는 변형적 절차를 중간에 가져야 한다.

(38) 부대가 청송으로 움직였다.

이러한 변형적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37)의 ‘움직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동사들의 범위를 한정하는 일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국어의 최상위 빈도 동사

17. ‘두 가지 의미’란 말은 물론 단순화한 것이다. ‘움직이다’의 다른 용법이 더 있다.

18. 기타 요소의 의미 해석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가령 선어말 어미나 어말어미가 행하는 의미해석 과정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성을 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어휘적 요소들에 대해서처럼 하나하나 고려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의미 해석에서의 역할은 부가어들의 경우와 흡사한 바가 있다.

19. 앞서는 의미 성분이 주절인 것으로 약속해 둔다.

20. Levin and Rapoport (1988)에서는 동사가 원래 갖던 의미 성분이 BY(‘by means of/in the manner of’의 의미를 표시한다고 함)와 같은 종속화 연산자와 함께 종속절로 내려오게 된 측면에 주목하여 이러한 현상을 ‘어휘의미적 종속화(lexical subordination)’라 일컫고 있다.

3000개 중에서 ‘-어’를 매개로 하는 예는 220개에 이른다.<sup>21</sup> 이들이 과연 복합문 구조를 가지게 하여 생성된 것이냐 하는 의문은 접어두더라도, ‘움직이다, 튀다, 흐르다’처럼 동사 형태를 그대로 하여 이동동사 구문의 구조를 가지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자명한 것 같지만 그 몇 예를 들으로써 문제를 명백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39) 가. 철수가 경애를 여학교로 찾아갔다.

나. \*철수가 경애를 여학교로 찾았다.

(40) 가. 그가 서울을 다녀왔다.

나. \*그가 서울을 다녔다.

(41) 가.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 \*그는 주위를 둘러다.

이들은 ‘기저구조는 가능한데 대응하는 표면구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이심적’ 구문의 동사가 ‘NP로’를 취하는 것이 중요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이들에서의 ‘-로’는 기본적으로 이동동사에서 경로(Path)의 의미역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움직이다’ 등의 동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로’는 본래의 것이 아니고 동사의 의미 전이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동문의 경우도 그렇지만, 지금 문제되는 현상이 문장 의미의 기초가 되는 동사 어휘의 의미 전이와 직접 관계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표준적인 변형의 기제가 여기에 힘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움직이다’ 등의 동사에서 나타나는 이심적 의미 전이를 설명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좀더 새로운 기제로서, 의미의 체계적인 변화를 규칙의 일부로서 기호화하는, 변형 과정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통용되는 변형의 개념은 의미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지만, Chomsky (1957)에서는 부정 변형 등, 문법적 의미의 첨가를 수반하는 변형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국어에서 일단의 움직임 동사가 이동동사의 구문 및 그 특징적인 의미를 얻어 가는 과정을 변형과 유사한 규칙으로 설정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이 가능성은 Jackendoff (1990) 및 Goldberg (1995) 등에서 영어의 상응하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도하고 있다. Jackendoff (1990)에서는 영어의 상응하는 구문에 대해서 ‘초어휘적 대응 규칙’이라는 이름의 규칙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sup>22</sup> 위에서 논한 국어의 예들을 이러한 방법에 따라 기술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준변형적 처리’라 부르기로 한다.<sup>23</sup>

21. 이들의 빈도수는 1992년 연세대 한국어사전편찬실의 빈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22. Goldberg (1995)에서는 이를 ‘구문 규칙(construction rule)’이라 부른다.

23. (42)에서 세 개의 논항 위치에  $\alpha$ 가 표시된 것은 이들이 어휘의미구조에서 내부적으로 ‘논항 결속(argument binding)’됨을 뜻한다.  $i$ 는 이 위치가 주어로 연결됨을 표시한다. 또, 의미적 종속절을 이끄는 WITH/BY에 대해서 Jackendoff (1990)는 동사의 의지성 여부에 따라 하나가 선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무의지성의 동사에서는 동시상황의 WITH만이 선택되고 의지성의 동사에서는 방편의 BY나 동시상황의 WITH가 선택된다는 것이다. Jackendoff (1990) 참조.

이는 또 다음과 같은 ‘구문적 속어’의 형태로 기술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동사구의 머리성분(head) 동사에 지표  $h$ 를 부여하고 이를 동사구의 의미에 대응하는 일부 의미와 대응하도록 하였는데, ‘어휘 삽입’이 S-구조와 같은 통사구조의 이후에 적용된다고 본다면 (Jackendoff (1990)), 이 ‘구문적 속어’는 어휘부의 밑반 어휘항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GO-부가어 규칙(구문적 속어):  
[VP Vh ... PP]는 다음에 대응된다.

$$\left[ \begin{array}{l} \text{GO}([\alpha], [\text{Path}]) \\ \text{AFF}([\quad]^i, ) \\ \left[ \text{WITH/BY} \left[ \text{MOVE}([\alpha]) \right] h \right] \end{array} \right]$$

(42) V가 [MOVE([ ] i), Z]에 대응되면 [ NP로 ... V ] VP는 다음에 대응된다.

$$\left[ \begin{array}{l} \text{GO}([\alpha], [\text{Path } ]) \\ \text{AFF}([\ ]^{\text{a}}, ) \\ \left[ \text{WITH/BY}([\text{MOVE}([\alpha])Z] \right] \end{array} \right]$$

{GO([\alpha], [Path ])} 즉 [가다] 해당하는 부분이 의미구조의 주절로 새로 덧붙여지게 되었다. 원래 동사의 의미는 WITH 또는 BY의 논향으로서 종속절로 내려와 있다. Z는 움직임 동사 각각이 가지는 어휘개별적 특질을 포괄하는 변수이다. 여기서 ‘움직이다’가 보이는 이심적 의미 전이의 양상은 구 단위의 의미 전이 절차에 대한 규칙화로써 포착되고 있다.

(42)는 변형과 같이 너무 강력한 규칙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통사구조적인 차이가 의미의 차이와 체계적으로 대응되는 현상들이 현실 언어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받아들일 때, 이들을 기술하는 이론적 장치로서 큰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도 위에서 든 국어의 예를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성이 있다.

앞 절의 (21)에서 든 움직임 동사들 모두가 그 어휘의미구조에 [MOVE(X)]와 같은 형식을 골격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NP로’를 가지는 동사구 안에 나타나면, (42)는 이들이 모두 이동동사의 의미, 즉 [가다] 의미를 가지는 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측은 적중하지 않는다.

(43) 가. ?\*그는 학교로 걸었다.

나. \*철수는 그곳으로 떨어졌다.(‘떨며 갔다’의 뜻으로)

다. \*그가 공원으로 서성거렸다.

라. \*그가 이 곳으로 뒹굴었다.

앞 절 (21)의 움직임 동사들 중에서 ‘NP로’를 가지면서 [가다]의 의미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예가 고작이다.<sup>24</sup>

(44) 움직이다, 뛰다, 흐르다, 돌다, 뜨다, 뛰다

이렇게 이심적 의미 합성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움직임 동사만의, 또는 더 하위구분된 한 부류의 동사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들은 앞 절에서 하위구분한 1)유형과 2)유형에 걸쳐 있어서, 움직임 동사 내에서도 한 부류로 묶기 힘들다. 또, ‘향하다’와 같이 성질을 달리하는 동사도 움직임 동사와 같은 이심적 의미 합성의 양상을 보인다.

(45) 가. 집이 바다로 향해 있다.

나. 김씨가 학술회의에 참석하러 보스턴으로 향했다.

‘NP로’와 결합하기 전과 후의 양상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성을 보이기도 한다.

(46) 가. 그가/차가 움직였다.

나. 그가/\*차가 부산으로 움직였다.

24. 이 목록에 ‘뛰다’를 포함시킨 것은 “환율이 2000원대로 뛰었다.”와 같은 예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는 “환율이 하루 만에 2000원대로 뛰었다.”처럼 종결성을 가짐으로써, 보통의 ‘뛰다’ 문장과 다른 행태를 보여준다. 다른 동사의 예는 “그가 1년 만에 체제 옹호자로 돌았다.”, “비행기가 한 시간 만에 고도 2천 미터 상공으로 떴다.” 등이 있다.

(47) 가. 집이/그가 바다를 향했다.

나. 그가/\*집이 바다로 향했다.

(46), (47)에서 (나)는 두 동사가 주어에 대한 선택제약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44)의 동사들이 이동동사의 용법을 가질 때라도 그 선택제약은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48) 가. 그는 부산으로 움직였다.

나. 그는 학교로 움직였다.

다. ?\*그는 철수의 집으로 움직였다.

(48)에서 ‘움직이다’는 [ 전근하다 ] 또는 [ 전직하다 ]와 같은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쓰일 수 있다. 앞서의 (38) 같은 예에서는 주어가 개체가 아닌 집단이라야 자연스럽다. ‘움직이다’가 이동동사로 쓰일 때에는 그 움직임이 공적인 것, 조직과 관계되는 움직임이라는 의미적 제약이 따라붙는 것으로 보인다. (48다) 예문의 부적격성은 이와 같이 설명된다.

움직임 동사들이 이동동사적 용법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갈리며, 이동동사 용법이 가능하더라도 어휘마다 특이한 선택제약을 새로 가진다는 사실은 위에서의 ‘초어휘적 대응 규칙’이 정당한 규칙으로서 기술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42)의 규칙이 적용되어 의미 성분 [ 가다 ]를 첨가받게 되는 동사들의 부류를 특징짓기도 쉽지 않다. 지금까지 ‘움직이다’류를 문제삼아 왔지만, 앞에서 이심적 의미 합성의 양상을 보이는 다른 예로 ‘향하다’를 든 바 있다. 원래의 어휘의미에서 ‘움직이다’류와 ‘향하다’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적 특질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움직이다’류만을 위한 초어휘적 규칙을 그런 대로 형식화할 수는 있겠지만, ‘향하다’와 같은 예가 더 찾아질수록 이 형식화는 일반성이 결핍된 것이 되고만 다.

이제 이상의 증거들을 가지고 취해질 수 있는 해결책은, 국어에서 문제의 이심적 의미 전이의 절차를 통사적 규칙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어휘부의 독립된 새 어휘기재항에 기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휘부 내의 처리’라고 부를 수 있다. 영어의 상응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준변형적 처리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나, 국어의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말마다 어떤 방식의 규칙화를 선택하느냐에 관해서 상이한 방향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43가)에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들었던 ‘건다’는 ‘방향’의 의미가 아니라도 ‘NP로’를 취할 수 있으나, 이것이 ‘통로’나 ‘경유지’를 의미할 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 역시 논항에 대한 어휘개별적인 제약으로 간주해야 할 예이다.

(49) 그가 학교 옆길로 걸었다.

이러한 경우 ‘건다’의 어휘의미구조에 ‘경유’의 함수 ‘VIA’가 명시되어야만 한다. (49)에서 ‘건다’의 어휘의미구조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sup>25</sup>

(50) 건- :

$$\left[ \begin{array}{l} \text{GO} ( X, \left[ \begin{array}{l} Y \\ \text{VIA} ( [ \quad ] ) \end{array} \right] ) \\ \text{BY} ( \left[ \begin{array}{l} \text{MOVE} ( X ) \\ \text{Manner } \alpha \end{array} \right] ) \end{array} \right]$$

25.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둘은 다만 표기상의 변이형에 지나지 않는다.  
 $[ \text{GO} ( X, [ Y, \text{VIA} ( [ \quad ] ) ] ) ], [ \text{BY} ( [ \text{MOVE} ( X ) ], [ \text{Manner } \alpha ] ) ] ]$

경로를 목적어로 취하는 ‘걷다’의 경우도 유사한 형식의 어휘의미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한다.

(51) 걷- : 그가 학교 옆길을 걸었다.

$$\left[ \begin{array}{c} \text{GO} ( X, [\text{VIA}(Y)] ) \\ \text{BY} ( \left[ \begin{array}{c} \text{MOVE}( X ) \\ \text{Manner } \alpha \end{array} \right] ) \end{array} \right]$$

이와 같은 어휘개별적인 의미 국면을 적절히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은 어휘부 내의 처리가 아니고는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십적 의미 합성의 예들은 어휘부 내의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움직이다’류의 동사 및 ‘향하다’ 동사가 이동동사적인 용법을 갖게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동동사의 용법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통의 이동동사는 ‘-로’뿐만 아니라 ‘-에’와도 공존할 수 있는데, 이들 동사는 ‘-에’를 거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향하다’ 동사도 이처럼 이십적 의미 전이의 결과 이동동사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점은 흥미롭다.

(52) 철수가 교무실로/에 갔다.

(53) 가. 그들이 새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러 부산으로/\*부산에 움직였다.

나. 부대가 게릴라 잔당을 소탕하러 청송으로/\*청송에 움직였다.

다. 범인은 도피처를 구하러 부산으로/\*부산에 튀었다.

(54) 김씨가 학술회의에 참석하러 보스턴으로/\*보스턴에 향했다.

이렇게 ‘-로’는 가능하나 ‘-에’는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통의 이동동사는 이와 같은 제약을 갖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이는 ‘움직이다’가 기본적으로 ‘GO’ 함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는 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부산에’나 ‘교무실에’에 대응하는 의미 성분은 ‘-에’에 대응하는 장소의 함수 ‘AT’를 갖는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동동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의미 성분인 경로의 [ TO( X ) ]에는 논항 X 대신으로 장소의 [ AT(α) ]가 채워질 수 있다.<sup>26</sup> 이것이 이동동사 구문에서 ‘NP에’가 수용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움직임 동사처럼 원래 ‘GO’ 함수를 갖지 않던 동사의 의미구조에는 ‘NP에’의 의미성분 [ AT(α) ]가 대체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위에서는 ‘움직이다’, ‘향하다’가 예외적 용법으로서 이동동사의 의미구조를 새로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경우 [ AT(α) ]는 새로 생겨난 ‘GO’ 함수의 두번째 논항인 [ TO( X ) ]의 X 자리에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명사항을 가진 (53), (54)는 비문이다. 그러므로 순전한 어휘적 처리 방식에 따르면 (53), (54)의 비문들을 막기 위해 각 어휘기재항에 ([ -AT ]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제약을 부여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기로 한다. 일단 개개의 어휘들에 특유한 제약 사항에 대해서는 어휘기재항에 낱말이 기술하지만, ‘NP로’는 그 자체가 초어휘적 대응 규칙으로서 이동동사 구문이나 이동동사적 용법의 구문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동동사적 용법의 ‘움직이다’류, ‘향하다’는 그 어휘의미구조에서 주절의 형식을 [ GO( X, [ ] ) ]처럼 가지는 것으로 설정한다.

(55) 움직이2 : [ [ GO( X, [ Path ] ) ], [ BY([ MOVE( X ) ]) ] ]

26. 이는 앞서 (주13)의 개념구조 형성 규칙에 따라 적격한 형식이 된다.

이것은 앞서의 (35나)에서는 [ GO( X , [ TO( Y ) ] ) ]로 더 명세화된 형태였으나, 암시 논항을 가진 [ GO( X , [ ] ) ]로 바뀐 것이다. 보통의 이동동사의 어휘의미구조는 여전히 ‘TO’ 등의 경로 함수를 병합한 형식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들과 구별한다. 또, (49)의 경우에는 경유의 ‘VIA’를 요구하는 특이한 어휘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대로 (50)으로 기재된다. ‘NP로’ 규칙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56) 목표의 ‘NP로’부가어 규칙:

V가 [ ... GO( ..., [ (A) ] ) ... ]에 대응되고, ‘NP’가 [ B ]에 대응되면,

[ ... [ ... [NP로] PP ... V ] VP ... ] S는 다음 의미구조에 대응된다.

$$\left[ \dots GO \left( \dots, \left[ \begin{array}{c} (A) \\ TO([B]) \end{array} \right] \right) \dots \right]$$

단,  $\left[ \begin{array}{c} (A) \\ TP([B]) \end{array} \right]$ 는 [ A ] 또는 암시 논항 [ ]와 TO([ B ])의 융합.<sup>27</sup>

이 규칙은 보통의 이동동사 문장이나 이심적 전이의 움직임 동사 문장에 모두 적용된다. 이 규칙이 이동동사 문장에 적용될 때는, 이동동사의 어휘 의미구조에 들어 있던 [ TO( X ) ]와, 이 규칙에 의해 도입되는 의미 성분 [ TO([ B ]) ]가 융합하게 된다. 둘은 동일한 함수 형식이므로 융합의 결과는 [ TO([ B ]) ]가 된다. (49)의 경우에는, 동사의 어휘의미구조 (50)의 부분 구조인 [ Y, VIA([ ] ) ]에 [ TO([ B ]) ]가 융합하게 되어 그 결과로 [ VIA([ B ]) ]가 얻어지게 된다.<sup>28</sup>

이제 (53), (54)에서 ‘-에’ 구조가 비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동사의 어휘의미구조 [ GO( X , [ ] ) ]를 바탕으로 ‘NP에’의 의미 성분 [ AT(α) ]이 융합된 결과는 [ GO( X , [ AT(α) ] ) ]와 같은 것이 된다. ‘GO’ 함수는 두번째 논항으로서 경로를 요구하므로 이 의미구조 형식은 적격하지 못한 것이 된다.<sup>29</sup>

이상에서 ‘움직이다’류가 새 논항을 갖는 경우에 변형적, 준변형적 처리가 불가능하고, 어휘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다. 움직임 동사와, 전이된 이동동사적 용법 사이의 연관은 잉여적인 어휘규칙으로 포착해 줄 수 있을 것이다.<sup>30</sup>

움직임 동사와 이동동사는 서로 구별되는 동사들의 하위부류라는 것이 2.1절의 논지였다. 이 절 2.2의 논의가 옳다면 두 부류의 의미구조 형식이 서로 달리 표상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시 증명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 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어휘의미의 기술과 의미구조-통사구조의 대응에 관한 설명이 시상성의 국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더욱 지지됨을 보이려고 한다.

### 3. 시상성 가설 비판과 ‘재어나누기’

Tenny (1987)에 의하면, 목적어나 비대격 구문의 주어는 affected되는 것인데, affected된다는 것은 시상적인 개념인 국한성(delimitedness)으로 해석되고,<sup>31</sup> 국한성은 다시 재어나누

27. ‘융합’에 대해서 Jackendoff (1990)에서는 전산 정보처리 이론에서의 기본 개념인 단일화(unification)와 가까운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두 가지 특질 구조(feature structure)가 결합하여 모순되는 특질이 없는 경우 동일한 것은 하나만 남기고, 서로 다른 특질은 모두 받아들여 복합적인 특질 구조를 이루어 가는 절차가 단일화 연산이다. 단일화의 엄밀한 정의에 대해서는 Shieber (1986) 참조. 다만, 단일화에 실패한 경우에도 그 부적격한 구조가 생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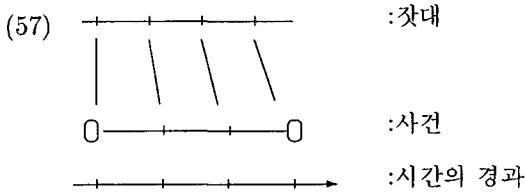
28. 융합에 있어서 ‘VIA’는 ‘TO’와 모순되지 않으며, ‘TO’보다 강한 성질을 갖는다고 상정함으로써 ‘TO’가 아닌 ‘VIA’가 남아 있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29. (주13) 참조.

30. 기존 어휘들 사이의 어휘적 관계를 포착하는 것만을 소임으로 하는 Jackendoff (1975) 방식의 어휘규칙을 의도하는 것이다.

31. 국한성은 보통 다른 연구자들이 종결성(telic)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Tenny (1994) 참조.

기(measuring-out)로 해석된다고 한다. 목적어와 비대격 구문의 주어는 흔히 ‘직접논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sup>32</sup> 직접논항은 내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이 변화가 사건과 비례적인 대응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건이 중점을 향하여 변화되어 간다는 점이 주어지면 이 관계가 ‘재어나누기’가 된다.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보일 수 있다. 직접 논항은 눈금이 그려져 있는 ‘잣대(measure)’가 되어, 사건을 시간적 경과에 따라 재어나누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 채의 집을 짓는 사건은 내재적으로 그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다. (58가) 예문에서는 ‘집 한 채’를 기준으로 사건의 경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8) 가. 그 사람이 집 한 채를 지었다.

나. 그 사람이 한 달 만에 집 한 채를 지었다.

(58나)는 집 한 채를 지은 기간이 한 달임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 사건이 그 기간 마지막에 완성됨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런 경우의 목적어 ‘집 한 채’는 전형적인 ‘잣대’로 쓰인 것이다. 집이 다 완성되기 전에도 ‘집 한 채를 아직 짓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처럼 ‘창조/생성’을 표현하는 동사의 목적어로서 ‘집 한 채’는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로서의 집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집 한 채’를 눈금이 그려진 잣대로 삼아 집을 짓는 사건을 조망하고 있는 것이 (58가)나 (58나)의 문장이라고 하겠다. 집이 처음 지어질 때의 단계로부터 전체의 건물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각 단계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집 한 채’의 완성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각 단계는 시간상의 어느 한 시점과 대응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위 그림이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잣대’인 ‘집 한 채’는 집 한 채를 짓는 사건을 ‘재어나누다(measure-out)’고 한다.

외부논항은 사건의 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58가)에서 목적어를 복수의 표현으로 바꾸면 단일 사건이 아닌 반복적 사건을 의미하게 되지만, 주어는 그와 같은 결과를 유발하지 않는다.

(59) 가. 그 사람이 집들을 지었다.

나. ?\*그 사람이 한 달 만에 집들을 지었다.

(60) 사람들이 집 한 채를 지었다.

원래 Tenny (1987)의 취지는 모든 직접논항이 사건을 재어나누는다고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동사들의 행태는 그와 같이 강한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우선, ‘직접논항’에는 시간성을 내포하지 않는 동사의 논항들이 존재한다. 상태성 동사들의 주어의 경우 사건을 시간적으로 재어나누는 것은 개념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이론의 설명의 범위는 그만큼 축소된다. 그리고, 시간성을 내포하는 동사들 중에서도 상당수의 부분이 재어나누기의 요소를 보이지 않는다. 접촉동사, 소유전이 동사, 대칭동사 등이 그 예이다.<sup>33</sup>

32. 이 외에 ‘외부논항’은 행위자 의미역을 가지면서 주어로 나타나는 논항을 지칭한다. ‘내부논항’을 직접논항과 간접논항의 둘로 가르는데, 간접논항은 타동 구문에서 목적어 외의 논항이나 비대격 구문에서 주어 이외의 논항을 가리킨다.

33. 양정석(준비중)에서는 국어 동사들의 전 부류에 대해서 재어나누기의 여부, 재어나누기의 방향, 복합적인 재어나누기 등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재어나누기가 나타나는 동사라는 점에서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방향이 언제나 직접논항으로부터 사건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먼저, ‘실연(實演)’을 표현하는 동사에서는 사건의 시간적 경과가 실연되고 있는 목적어를 재어나누는다.

(61) 그 사람이 노래 한 곡을 불렀다.

직접논항인 ‘노래 한 곡’이 잣대가 되어 노래를 부르는 사건을 재어나누고 한계짓는다는 것이 Tenny (1987)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노래’는 바로 해당 사건의 이름이 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건, 즉 노래 한 곡의 부분부분이 점점 완성되어간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논리적으로 시간의 경과가 독립 변수이고, 사건은 오히려 그에 의존하는 변수가 된다.

다음과 같이 ‘연장(延長)’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의 문장에서는 직접논항이 사건을 재어나누기보다는, 오히려 경로(path)가 직접논항을 재어나누는다.

(62) 호남고속도로가 대전에서 광주까지 뻗었다.

‘대전에서 광주까지’는 연장(延長)의 경로를 표현한다. 여기서는 이것이 잣대가 되어, 직접논항인 ‘호남고속도로’의 처음으로부터 끝까지 대응되는 관계를 표현한다. 시간의 경과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동동사와 움직임 동사 구문에서 목적어가 잣대가 되어 사건을 재어나누는다고 하는 설명이 문제성을 가진다는 것은 Tenny (1987)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Tenny (1994)에서는 수정된 설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사건이 척도에 따라 국한될 수 있는 그 척도를 부여하는 것이 이들 동사의 직접논항이라고 설명한 것은 역시 직접논항을 중심으로 하여 재어나누기의 현상을 일반화하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동사에서는 사건의 시간적 경과가 경로를 재어나누는다.

(63) 철수는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학교길을 갔다.

(64) 철수는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학교길을 걸었다.

두 문장에서 ‘집에서 초등학교까지’는 ‘학교길’의 처음과 끝을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종결성의 해석이 얻어진다.

(65) 철수는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학교길을 한 시간 만에 갔다.

(66) 철수는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학교길을 한 시간 만에 걸었다.

‘집에서 초등학교까지’와 같은 명시적인 경로의 표현이 나타나야 이를 기준으로 하여 ‘학교길을 걷는’ 사건이 한정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집에서 초등학교까지’와 같은 경로 표현이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도 정확하지 않다. 이 경우 ‘경로’의 부분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 비례적으로 사건의 부분부분들과 대응이 된다고 하기보다는, 반대로 사건이 시간적으로 경과함에 따라 경로의 부분부분들이 정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철수가 초등학교까지 가는 도중에 일정한 정도의 거리만큼씩,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일부분 뒤로 돌아갔다 다시 전진하더라도 (63)이나 (64)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시간적 경과를 잣대로 본다면, 시간의 경과가 일정 부분씩 계속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경로의 일부분이 형성된다고 하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재어나누기’가 실제로 관찰되는 동사들에 한정하더라도 언제나 직접논항으로부터 사건으로의 한 방향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34</sup> 또, 사건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시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상태성 동사들과의 비교를 위하여, 시간의 경과를 독립된 요소로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34. Jackendoff (1996)에 이와 같은 취지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 논문의 초고가 1991년판으로서 참고문헌 목록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Tenny (1994)에서의 이론의 수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Tenny (1994)에서는 더 이상 이동/움직임 동사에서 직접논항이 사건을 재어나누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수정된 이론에서는 종결성을 갖는 동사의 어휘기재항에 시상성에 대한 정보로서 ‘갯대(MEASURE)’ 또는 ‘노정(PATH)’, ‘중점(TERMINUS)’이라는 세 가지 시상역(시상성 역할: aspectual roles)을 할당하여, 이로부터 논항 연결의 원리들과 상관되도록 실행 장치를 새로이 조정하고 있다. (63)-(66)에서는 ‘학교길을’로 나타나는 ‘노정’, ‘학교까지’에서 나타나는 ‘중점’이 동사의 어휘기재항에 설정되어 있다가 통사구조로의 연결 과정에서 할당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갯대, 노정, 중점’의 세 가지 시상역을 바탕으로 하여 외부논항, 직접논항, 간접논항의 세 가지 논항들에 대한 제약을 설정한다. 외부논항은 재어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외부논항 제약’이고, 다음 두 제약이 주의를 요한다.

(67) 직접논항에 대한 재어나누기 제약:

외현적인 논항들 중에서 직접논항만이 사건을 재어나누며, 내적인 움직임이나 내적인 변화를 겪는 직접논항은 반드시 사건을 재어나누는 다.

(68) 간접논항에 대한 중점 제약:

사건이 중점을 가질 때에는 잠재적이거나, 외현적이거나, ‘노정’도 아울러 가져야 한다. 간접논항은 중점이 됨으로써만 사건의 종결성(시상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한 동사에 의해 기술되는 사건에 대해서 두번 이상의 재어나누기가 행해질 수 없다는 제약이 더 있다.

(67)의 제약은 재어나누지 않는 직접논항을 갖는 동사를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 재어나누지 않는 직접논항은 내적인 움직임이나 변화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또, 절(clause)로 된 논항은 이 제약에 관계되지 않으며, 직접 논항을 아예 갖지 않는 동사도 이 제약과 관계 없다. 그리고 직접, 간접의 내부논항을 갖지 않는 동사는 국한된(한계지어진) 의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 제약은 표현하고 있다. 직접논항은 사건에 갯대와 아울러 중점을 부여하지만,<sup>35</sup> 목표(goal)인 간접논항만이 사건에 중점을 부여한다. 중점은 사건을 국한시키는데, 간접논항은 사건에 시간적인 중점을 부여함으로써만 시상성 구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간접논항은 (사건을 재어나누지는 못할지라도) 사건을 국한할 수 있다고 한다.

(67), (68)와 같은 실행상의 장치는 시상성과 통사론의 상관관계에 관한 원리인 다음의 가설을 구체화한 것이다.<sup>36</sup>

(69) 시상성 계면의 가설

의미역 구조와 통사적 논항구조 사이의 사상은 시상성 속성들에 의하여 지배된다. 통사구조에서 내부(직접)논항, 외부논항, 사격 논항들과 관련된 보편적인 시상적 구조가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건 참여자들의 종류를 제약한다. 오직 의미역 구조의 시상성 부분만이 보편적인 연결 원리들에 가시적이다.

affectedness가 시간적인 재어나누기로 해석되어 모든 직접논항으로의 연결을 지배하도록 한다는 것이 원래 Tenny (1987)의 취지였으나, 이 점이 많이 약화되었다. 재어나누기, 또는 국한성이 논항 연결에서 행하는 역할은 직접논항을 가지는 구문들 중에서도 아주 일부에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바뀐 이론에서도 (69)에서 보는 것처럼 논항 연결의 과정을 제약하는 요소는 시상성일 뿐이라는 주장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는 재어나누기의 관계가 겹으로 맺어지는 현상의 존재, 그리고 한계성 없는 재어나누기의 존재라는 문제를 언급하고 그에 대한 기술의 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재어나누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은 드물지 않다. ‘-로’ 구조의 처소교차 동사에서는 목적어가 사건을 재어나누면서 동시에 ‘NP로’의 재료 NP를 재어나누는다.

35. Tenny의 ‘갯대’는 중점을 포함한 개념이다.

36. Tenny (1994) 2쪽. Tenny (1992)에는 끝부분의 ‘보편적인 연결 원리들에 가시적이다.’가 ‘통사론에 가시적이다.’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만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70) 인부들이 벽을 페인트로 칠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단일한 재어나누기 관계만을 고려하여 고안된 Tenny의 ‘시상역틀’의 기술 방안은 충분하지 못하다. (70)에서 목적어가 잣대가 되어 사건을 재어나누는 점을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NP로’에 재료의 성질을 가지는 명사구가 나타나야 한다는 점은 이중적인 재어나누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sup>37</sup>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상태성 동사들은 ‘시상성 가설’에서 근본적으로 제외된다. 그런데, 시간성을 갖지 않는 상태성 동사에서 재어나누기의 요소가 발견된다.

(71) 가.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나.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하다.

(71가)와 비교해 볼 때, (71나) 문장은 주어인 ‘거리’가 ‘사람들’을 재어나누는 다고 할 수 있다. 평면적으로 거리의 어느 부분들이 그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부분으로 대응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시간성을 내포한 예문들에서도 재어나누기의 관계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둘 사이 에 이 점과 관련한 공통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72) 가. 거리에 사람들이 들끓었다.

나. 거리가 사람들로 들끓었다.

(71)의 예는 재어나누기가 시간적으로만 해석되어 직접논항과 관계된다는 ‘시상설 가설’에 문제를 제기한다. ‘재어나누기’는 개념적으로 ‘잣대’와 관계되고, 원래 잣대는 사건이 ‘중점’을 향하여 가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었는데, (71나)에서 직접논항을 ‘잣대’와 가까운 것으로 보면 중점 없는 재어나누기의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Tenny (1994)의 수정된 이론도 이 점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재어나누기’가 시간적인 중점을 필수적으로 내포한 개념이라는 Tenny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예가 움직임 동사이다. 앞의 2.1절에서 움직임 동사가 이동동사와 구별되는 부류임을 밝히면서 이 둘이 시상성에서도 상이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63)-(66)에서는 두 부류가 재어나누기의 방향에서 같은 특징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시상성과 관련한 두 부류의 차이에 대해서 더 알아 보자. 사실, (63)-(66)만 을 본다면 두 부류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

(73) 가. 철수가 그 산길을 갔다.

나. 철수가 그 산길을 걸었다/뛰었다.

그러나, 이 두 문장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74) 가. 철수가 한 시간 만에 그 산길을 갔다.

나. ?\*철수가 한 시간 만에 그 산길을 걸었다./뛰었다.

(74가)는 특정의 산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움직임 동사의 문장인 (74나)는 정상적인 문맥에서 그와 같은 완성성(accomplishment)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한 시간 만에’가 시작점 이전까지의 시구간을 표현하는 문장으로는 가능하다. 이는 (74나)의 ‘뛰다’가 목적어를 가질지라도 이 목적어가 중점을 내포한 개념으로서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움직임 동사의 문장에 결과 지점을 나타내는 명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7. Jackendoff (1996)에서는 이밖에도 영어 동사 ‘flow’의 경우 상태, 대상인 사물, 공간, 시간의 네 가지가 모두 투사되어 각각의 투사축을 가지고, 이들 투사축에 구조보존 결속의 변수가 가해져서 삼중, 사중으로 재어나누기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75) 가. 철수가 그 산길로 이웃 마을을 갔다.

나. \*철수가 그 산길로 이웃 마을을 뛰었다.

(75)는 결과 지점의 표현이 목적어 형식인 경우이지만, 다음은 그것이 ‘-로’ 명사형인 경우이다.

(76) 가. 철수가 그 산길로 이웃 마을로 갔다.

나. \*철수가 그 산길로 이웃 마을로 뛰었다.

‘뛰다’는 당연값으로서 동작성(activity)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앞 절에서 논의한 이심적 전이의 경우 말고는, 움직임 동사들은 동작동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고 본다. 동작동사의 문장에서도 ‘재어나누기’의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중점을 가지지 않은 것이다.

(77) 가. 철수가 그 길을 뛰었다.

나. ?\*철수가 세 시간 만에 그 길을 뛰었다.

(77가)가 다른 수식어 없이 길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파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시작과 끝이 명시된 경로의 표현이 주어지면 완성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심지어 (78다)처럼 특정 도로의 이름에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완성성의 의미가 얻어진다.

(78) 가. 그가 10킬로미터의 도로를 세 시간 만에 뛰었다.

나. 그가 전주와 군산 간의 도로를 세 시간 만에 뛰었다.

다. 그가 전군가도를 세 시간 만에 뛰었다.

수량어를 덧붙여 이중목적어 구문을 형성하는 방법은 매우 생산적인 통사적 방법이다. 위의 (78가)에 대응되는 다음 문장 형식도 적격성을 얻는다.

(79) 그가 도로를 10킬로미터를 세 시간 만에 뛰었다.

흥미로운 것은 경로를 수량으로써 수식한 표현이 이동동사 구문과 움직임 동사 구문 모두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80) 가. 철수가 산길을 10리를 갔다.

나. 철수가 산길을 10리를 뛰었다.

다. 철수가 한 시간 만에 산길을 10리를 갔다.

라. 철수가 한 시간 만에 산길을 10리를 뛰었다.

‘한 시간 만에’ 부가어를 개입시켜도 둘 다 적격성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사이의 차이란, 이동동사의 한계성(boundedness)은 ‘+b’와 같은 특질이 당연값으로 고정되어 주어지는데 반해, 움직임 동사는 그렇게 고정된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상의 사실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자 한다. 이동동사 ‘가다’는 노정과 함께 중점을 가진다. 그러나 움직임 동사는 노정만을 가지되, 중점 없이 재어나누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명시적인 시작과 끝의 표현이 나타나면 이들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의 특질이 동사의 재어나누기 특성과 결합하여 종결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78)의 세 문장에서는 동사가 가지지 않던 한계성의 특질을 목적어가 부여하고 있다.

Tenny (1994)는 영어에서 움직임 동사와 이동동사를 가르지 않고, 이들이 종결성을 가질 경우 동사 어휘가 내재적으로 ‘노정’과 ‘중점’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영어의 동사 ‘walk’는 그 어휘기재항에 다음과 같은 시상역들이 설정된다고 한다.<sup>38</sup>

38. Tenny (1994) 108쪽.

## (81) [(노정, 중점)]

그런데 이 시상역들을 해석하는 방식은 상당히 자의성을 띠고 있다. 물론 그는 ‘노정’이나 ‘중점’의 시상역은 하나가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다른 것이 따라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실험상의 제약을 두고 있다.(앞의 (68) 참조) 다음과 같이 5가지 문장 형식이 모두 이와 같은 시상역들의 적용으로 생겨난다고 한다. (82가), (82나)는 시상역이 아무것도 할당되지 않은 것이며, (82마)는 노정과 중점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경우라고 한다. 특히 (82다)와 (82라)는 노정 또는 중점이 암시적인 경우라고 한다.

## (82) 가. Susan walked for hours.

나. Susan walked the Appalachian Trail for days.

다. Susan walked to Canada in sixty days.

라. Susan walked the Appalachian Trail in sixty days.

마. Susan walked the Appalachian Trail to Canada in sixty days.

원래 Tenny (1987)에서는 (82나), (82라), (82마)의 경우 경유지를 표현하는 목적어도 갖대로 보아, 이것이 사건을 재어나눈다고 설명했던 것이, Tenny (1994)에서는 이와 같이 시상역들을 이용한 방법으로 수정된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의 ‘갖대’는 그 자체 내에 ‘중점’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동동사와 움직임 동사에서 ‘노정’과 ‘중점’이 언제나 함께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의 ‘재어나누기’ 개념이 원래부터 중점까지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자신의 예인 영어의 예문 (82나)는 중점 없는 재어나누기의 개념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과 비교되는 (82라)는 명시적 노정과 암시적 중점이 실현된 것이라고 하지만, 동일한 목적어를 가진 동일한 동사가 상반된 시상성을 보인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어의 움직임 동사 구문에서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동동사는 당연값으로 중점을 내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움직임 동사는 당연값으로도 중점을 내포하지 않는다. 부가어 등의 외부 요소에 의해서 시작점과 끝점의 내용이 주어지면 그제서야 이동동사와 마찬가지로 완성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가 국어의 움직임 동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sup>39</sup>

## (83) 가. \*철수가 들길을 학교로 걸었다.

나. \*철수가 들길을 학교로 뛰었다.

이러한 문장 형식에 대응되는 영어의 예는 쉽게 찾을 수 있으나 국어에서는 이런 문장 형식이 배제된다.

움직임 동사 구문에서 중점 없는 ‘재어나누기’의 현상이 존재한다는 이상의 논증이 옳다면 Tenny의 시상성 가설은 더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움직임 동사들은 Vendler (1957)에서 동작동사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던 것들이다. Tenny는 직접논향의 affectedness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일반화하기 위해 이 동사들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재어나누기는 중점 개념의 내포 여부와는 상관 없이 문법에서 유용한 개념이다. Jackendoff (1996)에서는 중점 개념으로부터 분리해서 재어나누기의 개념을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영어의 roll 동사 구문에 대한 분석의 예를 살펴 보기로 한다.

가령, ‘pipe’는 환형의 단면이 선적으로 투사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인지 체계 내에서 이것이 표상되는 층위를 ‘공간 표상’이라고 하면, 이에 대응하는 ‘개념구조’ 층위의 표상은 대략 다음과 같이 된다.

39. 익명의 심사위원은 다음 두 문장에서 ‘학교로’와 ‘들길’의 순서를 바꾸면 정상적인 문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필자에게는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껴진다.

$$(84) \begin{bmatrix} [1d] \\ || \\ 2d \\ \text{환형} \end{bmatrix}$$

두 선 ||는 2차원(2d)의 평면 형태인 환형이 1차원(1d)으로 선적인 투사를 함을 나타낸다. 이것을 ‘투사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84)은 개념구조의 표상이다. 이는 인지 체계의 또 다른 단원(module)인 ‘공간 표상’ 층위에서 이에 대응하는 공간적 인지의 표상을 가지고 있다.

중점과 독립된 개념으로서의 재어나누기는 실제 어휘의 의미구조 기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Jackendoff (1996)에서는 영어의 동사 ‘roll’이 가지는 의미구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85가)는 ‘to NY/into the house’와 같은 한계성(boundedness) 표현으로 말미암아 전체 문장이 한계성으로 고정된 경우이고, (29나)는 ‘toward the house’와 같은 비한계성 표현으로 말미암아 비한계성으로 고정된 경우이다.

(85) 가. 한계성(+b)일 경우: The cart rolled to NY/into the house.

$$\begin{bmatrix} [1d]_{\alpha} \\ +b \\ || \\ 2d \\ \text{Sit BE} \end{bmatrix} \left( [Thing X], [Space 0d] \right); [Time 0d]$$

나. 비한계성(-b)일 경우: The cart rolled toward the house.

$$\begin{bmatrix} [1d]_{\alpha} \\ -b \\ || \\ 2d \\ \text{Sit BE} \end{bmatrix} \left( [Thing X], [Space 0d] \right); [Time 0d]$$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태 함수 BE와, 공간, 시간이 각각 1차원으로 투사되었으며, 투사된 각각이  $\alpha$ 에 의해서 서로 결속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을 ‘구조보존 결속(structure-preserving binding)’이라고 부른다.<sup>40</sup> 세 투사축이 서로 결속됨으로써, 어느 한 축의 한계성/비한계성 특질은 동시적으로 세 곳으로 전승되어 일치하게 된다. 여기서 (85가) 문장이 가지는 ‘중점’의 요소는 한계성 특질(+b)으로써 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보존 결속이 중점 없는 재어나누기의 관계를 포착해 주는 것이다.

문장의 시상성 특질이 동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명사의 특질에 따라서, 또는 영어에서 전치사에 따라 바뀌어진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위와 같은 구조는 이 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요소들이 가지는 특질로 말미암아 한 가지 값으로 고정되어, 마치 명사구의 수량화에 의해서 전칭/특칭의 값이 정해지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값이 결정되는 것이다.

Jackendoff (1996)는 재어나누기가 시상성과 관련한 현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재어나누기 현상을 명시적으로 형식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종래 자신의 표기법에서 사용하던 의미 원소들을 더 원자적으로 해체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위의 동사 ‘roll’은 이전의 그의 연구에서 MOVE 함수를 통하여 기술되었던 예이다. 그

40. Jackendoff (1996) 322쪽.

러나 ‘경로’는 ‘장소’가 투사된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이 둘이 하나의 ‘공간(space)’으로 환원되고 있다. 또, 경로 함수를 그 논항으로 포함하는 이전의 사건 함수 GO도 상태 함수 BE로부터 투사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새로운 표기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의 표기를 재어나누기 현상을 형식화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손질하기로 한다. 경유지의 ‘NP를’을 취하는 ‘걷다’는 한계성 없는 재어나누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표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의 ‘걷다’는 비종결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종점 없는 재어나누기, 즉 구조보존 결속의 관계는 맺어지고 있되, 한계성의 값은 아예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sup>41</sup> M은 구조 보존 결속의 변수를 표시한다.

(86) 걷- : 그가 들길을 걸었다.

$$\left[ \begin{array}{l} GO/M(X//M, [VIA/M(Y)]) \\ BY( \left[ \begin{array}{l} [MOVE(X)] \\ [Manner \alpha] \end{array} \right] ) \end{array} \right]$$

//는 왼쪽의 요소가 투사됨을 표시하기로 한다. X//M은 대상인 X가 투사되고, 그 투사축에 구조보존 결속의 변수 M이 표시되는 것을 보인 것이다. 사건 함수 GO는 상태 함수 BE가 투사된, 투사축인 것으로 보고 그대로 하나의 빗금 / 옆에 M을 병기해 놓았다. 또 ‘경로’도 그 자체가 ‘장소’의 투사축이므로, 경로 함수 VIA에 그대로 구조보존 결속을 형성하는 변수를 표시해 놓았다. 경유지의 ‘NP로’를 취하는 ‘걷다’도 이와 같은 꼴로 기술된다.

다음으로, 동사 의미의 이십적 전이의 결과로 종결성을 가지게 된 ‘움직이다’의 어휘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상하기로 한다.

(87) 움직이2 : 부대가 청송으로 움직였다.

$$\left[ \begin{array}{l} GO/M:+b(X//M:+b, [Path \quad ]/M:+b) \\ BY( [MOVE(X)] ) \end{array} \right]$$

‘+b’는 한계성의 특질을 표시한다. 구조보존 결속이나 한계성 특질의 표기는 개념구조의 상위 절에만 표시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어휘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동동사의 어휘의미구조에도 (87)과 같은 방식으로 한계성의 값이 지정된다. 요컨대, 이동동사는 한계성의 특질이 어휘에 당연값으로 지정되는 반면 경로의 ‘NP를’을 취하는 움직임 동사는 어휘적으로 아무런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둘을 구분짓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4. 마무리

이상에서 국어의 움직임 동사 구문을 중심으로, 동사의 의미로부터 논항구조가 실현되는 것을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움직임 동사와 이동동사를 구분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목표 논항의 존재와 시상성 해석의 문제에 접근하였다. 움직임 동사는 목표를 나타내는 ‘-로’ 명사항과 ‘-에’ 명사항을 취할 수 없다는 점, ‘-러’ 연결어미의 절과 공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한 시간 만에’ 따위의 시간 부가어

41. 시간의 투사는 고려하지 않았다. Jackendoff (1996)에서는 투사되기 전과 후의 대상, 상태, 시간을 0차원(0d), 1차원(1d), 2차원(2d), 3차원(3d) 등의 정보로 표시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86)은 앞 절에서와 같이 다음의 형식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

[[ GO/M( X//M , [ VIA/M( Y ) ) ], [BY( [ [MOVE ( X ) ], [ Manner α ] ] ) ] ] ]

를 개입시킬 경우 종결성의 해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동동사로부터 분리되었다.

다음으로, 'NP로'가 통합될 경우 동사가 원래 갖지 않던 의미성분이 오히려 의미상 주질의 요소로 떠오르게 되는 이심적 의미 합성, 또는 어휘의미적 종속화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주의하여 관찰하였다. 국어의 관련 현상을 변형과 같은 통사적 규칙이나 준변형적 규칙(초어휘적 대응 규칙)으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어휘기재항에서의 기호화를 통하여 기술하는 것이 합당함을 확인하였다.

시상성을 중심으로 조명한 결과도 이러한 결론을 지지해 주었다. 시상성과 관계된 논의에서 '재어나누기'의 국면이 중요한 요소로 추출되었는데, 이들을 기술하는 데에도 어휘부 내의 처리가 가장 타당하다는 것을 밝혔다. 재어나누기의 의미 현상은 어휘 내적으로 논항은 물론 상태, 사건, 장소, 경로, 시간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인 것이다.

이 글의 모든 논의는 Tenny (1987), Tenny (1994)에서 제안된 '재어나누기'의 개념을 정련하여 국어 동사의 어휘의미 기술 및 논항 연결의 이론 수립에 이용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에 모아졌다. Jackendoff (1996)에 따라 재어나누기에서 한계성을 분리하여 적용해 보니 앞서 관찰한 바가 체계적으로 기술될 수 있었다. 이동동사와, 이심적 의미 전이의 특징을 갖는 움직임 동사는 그 어휘의미구조에 한계성의 값을 가지는 재어나누기의 요소가 표시된다. 경로의 목적어나 경로의 'NP로'를 갖는 움직임 동사는 한계성 없는 재어나누기의 요소를 가지는 것으로 표시된다.

#### 참고문헌

- 김석득. 1981. 우리말의 시상. 애산학보 1집.
- 김영주. 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Ph.D. thesis, Harvard University.
- 김영주. 1995. Verb lexicalization patterns in Korean and some issues of language acquisition. 어학연구, 31-3.
- 김응모. 1989. 국어 평행이동 자동사 낱말발. 한신문화사.
- 서태룡. 1982. 국어의 의도·목적형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7.
- 양정석. 1997가. 이심적 의미구조-동사의 논항 연결과 관련하여-. 배달말, 22.
- 양정석. 1997나. 국어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개정판). 박이정출판사.
- 양정석. (준비중). 시상성과 논항 연결의 상관관계 검토.
- 이정민. 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Ph.D. thesis, Indiana University.
- 전수태. 1987. 국어 이동동사의 의미 연구. 한신문화사.
- 정희정. 1988. '에'를 중심으로 본 토씨의 의미. 국어학, 17.
- 채희락. 1999. 이동동사의 정의와 분류. 현대문법연구, 15.
- 홍기선. 1995. 이동동사와 장소명사 표지. 어학연구, 31-3.
- 홍재성. 1982. '-리' 연결어미문과 이동동사. 어학연구, 18-2.
- 홍재성. 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탑출판사.
- Choi, S. and M. Bowerman. 1991. Learning to express motion events in English and Korean: The influence of language-specific lexicalization patterns. *Cognition*, 41.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Mouton and Co.
- Goldberg, A. 1995. *Constructions-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ckendoff, R. 1975. Morphological and semantic regularities in the lexicon. *Language*, 51-3.
- Jackendoff, R. 1990. *Semantic Structures*. MIT.
- Jackendoff, R. 1991. Parts and boundaries. *Cognition*, 41.
- Jackendoff, R. 1996. The proper treatment of measuring out, telicity, and perhaps even quantification in Engl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4.
- Levin, B. and T. Rapoport. 1988. Lexical subordination. In *The Proceedings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volume 24, pages 275-289.
- Shieber, S. 1986. *An Introduction to Unification-based Approaches to Grammar*. CSLI, Stanford, California.



- Talmy, L. 1975. Semantics and syntax of motion. *Syntax and Semantics*, 4.
- Talmy, L. 1985. Lexicalization patterns: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T. Shopen, editor,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edition.
- Tenny, C. 1987. *Grammaticalizing Aspect and Affectedness*. Ph.D. thesis, MIT.
- Tenny, C. 1992. The aspectual interface hypothesis. In I. Sag and A. Szabolcsi, editors, *Lexical Matters*. CSLI, Stanford, California.
- Tenny, C. 1994. *Aspectual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 Vendler, Z. 1957. Verbs and times. *Philosophical Review*, 56.
- Wienold, G. 1992. Up and down: on some concepts of path in Korean motion verbs. *어학연구*, 28-1.

접수일자: 1999년 6월 11일

게재결정: 1999년 7월 15일